

드론축구 초대 세계 챔피언 ‘대한민국’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상식 개최… 국가대표전·클럽대항전·크래싱·슈퍼파일럿 종목별 ‘최강자’ 탄생

세계 최정상 드론축구 선수들이 격돌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차지해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상식’을 개최하고, 드론축구(Class40, Class20) 국가대표전과 클럽대항전, 크래싱(Cracing), 슈퍼파일럿 선발대회(Super Pilot Competition) 등 주요 종목의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은 우범기 전주시장, 김정은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 각 국 선수단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송출 △종목별 시상식 △축하공연 △야간 드론라이트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첫 드론축구월드컵에서는 23개국이 참가한 드론축구 국가대표전 결승에서는 한국(Class40)과 일본(Class20) 대표팀이 치밀한 전략과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각각 중국과 한국 대표팀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또, 클럽대항전 결승에서는 노련한 경기 운영과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한 한국 그리핀(Class40), 한국 리틀 그리핀(Class20)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첫 시범종목으로 드론 간 충돌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경기인 크래싱 대회가 펼쳐져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대망의 결승에서는 순간 판단력과 흔들

림 없는 집중력을 앞세운 대만 대표팀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한 최고의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파일럿 선발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드론 선수들이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펼친 결과, 한국의 황건우 선수가 최종 우승자로 선정돼 ‘세계 최강 드론 파일럿’이라는 명예를 얻

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시상식은 종목별 우승팀과 선수들의 영예를 기리는 동시에, 대회 기간 치열한 승부를 펼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회장을 찾은 관객들을 위해 비보잉과 드론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드론라이트쇼도 선보였다.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집약된 경기를 보니 드론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스포츠이자 기술임이 증명됐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이 가능성이 더 크게 뻗어나가도록 드론산업의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가 드론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축구를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스포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최서연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가결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서연 의원(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최서연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세계 최정상급 인라인선수들 전주에 모인다

11월 1~2일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개최

세계 최정상급 인라인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하는 스무 번째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2025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옛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이어지는 코스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인라인 선수와 임원, 동호인 등 약 5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대회는 △트랙대회 △마라톤대회 △슬라럼대회로 구성돼 수준 높은 경기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마라톤대회의 경우 세계 랭킹 10위권 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레이스를 펼치고,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42km 오픈부 △21km 마스터즈 △6km 비경쟁 코스 등 다양한 부문이 마련돼 선수·동호인·일반인 모두 즐길 수 있다.

마라톤대회의 참가자 전원에게는 20

주년 기념품과 완주 메달, 기록증이 제공되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회의 공동주관 단체인 전북 롤러스포츠연맹의 정영택 회장은 42km 남자부 마라톤 1위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내걸어 국내의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마라톤대회 전날에는 인라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치부·초등부·성인부 트랙 경기가 진행된다. 또, 대회 20주년을 기념한 인라인 슬라럼 대회가 송천동 실내경기장에서 첫선을 보인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7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www.jjinline.org)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조직위원회(063-273-11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전석진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은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대회이자,



올해 2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스케이터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경기 운영으로 전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인라인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 청년 활력 체육대회 개최

청년 120여명 참석 레크리에이션·체육대회 등 진행

전주에서 취업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26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청 청년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청년 활력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주)휴먼제이앤씨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과 더불어 피구와 족구, 율리기 등 다양한 대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경기 진행 내내 서로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청년 활력 체육대회는 전주올림픽 유치를 함께 응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됐으며, 참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경품 행사도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청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교통비 지원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면접장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청춘별채 △청년월세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각종 주거지원 정책과 △청년문화 예술패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CCTV 통합관제센터’ 정상 가동

전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증가와 야간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는 도심과 전통시장, 공원, 주택가 등 연휴 기간

많은 인과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는 총 1949개소, 4905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번 연휴기간에도 24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 근무 체제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관제요원들은 경찰 및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영화 학술대회 갖고 영화영상산업 발전 모색

전주시가 지역 영화인과 대학교수, 전문가들과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정연구원과 전주국제단편영화제,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인문학연구소, 4단계 BK21 호모 디비로스 양성사업단은 26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2025 지역영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화와 로컬리더: 산업·정책·아카이브를 통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주시와 지역영화 관계자, 영화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영화의 산업적 기반과 정책 제도와 아카이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주시 영

화영상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김건 전북대학교 교수, 이정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각각 ‘전주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과 ‘전주시 로케이션 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연구’, ‘영화 속 아카이브 실천과 공동체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특히 시가 글로벌 제작사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한 영화영상산업 발전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